

한국원자력학회 제37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최 성 민
소속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직위	교수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MIT	Applied Radiation Physics in Nuclear Engineering	PhD	1998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2001.3-현재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조·부·정교수	교육 및 연구
2016.9-2021.2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과/학과장	학과 발전 주관
2016.1-2017.12	아시아-오세아니아 중성산란협회(AONSA)	President	중성자 과학 국제협력 주관 *AONSA는 ENSA, NSSA와 함께 세계 3대 중성자 협회임
2015-2017	국제중성자산란학회 (ICNS2017)	공동 조직위원장	국제학회 유치, 준비 및 운영
2011.12-2016.10	KAIST	원자력선진기술 연구센터/센터장	연구 기획 및 수행

□ 활동 내역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23.9-현재	학회 부회장	소통위원회 위원장
2020.9-2022.8	학회 부회장	원자력 바로 알리기
2015.9-2017.8	편집이사	NET 편집위원
2014.11-2019.10	포상 및 장학위원회 위원	포상 및 장학 심의
2011.9-2013.8	총무이사	총무업무 (대회의실 등 학회공간 리노베이션 포함)
2020, 2023	제7회, 제10회 한국원자력대상 선정 위원회 위원	심의 및 선정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23.12-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 주관
2005.4-2011.3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소장	연구 기획 및 수행
2021.3-2023.2	고에너지가속기연구소 (KEK) International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위원	중성자과학 분야 국제자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했고, APR1400의 성공적인 수출로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인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경쟁이 치열한 SMR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 창출과 미래 먹거리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은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뜻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정치적 상황을 보면 또다시 원자력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원자력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불투명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자력계가 학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큰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 KAIST에 부임한 이래 중성자, X-선 등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 연구, 특히 KAERI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중성자 빔 활용 연구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탈원전 정책 시기에는 원자력 바로 알리기를 위한 구체적 실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핵공감 클라쓰'를 운영하였고,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와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길거리 원자력 홍보활동에 나선 원자력공학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대중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탈원전 진영의 활동이 얼마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뼈아프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이며, 현재 KAIST, 서울대, 부산대, KAERI와 함께 매년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입니다. 원자력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부존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인류의 건강은 물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이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대다수 국민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둘째,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더욱 더 높이기 위한 기술 및 법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 셋째, 원자력인 스스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 넷째, 미래세대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자력-방사선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이를 위한 소통, 토론, 실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원자력-방사선 유관학회 및 기관, 에너지/과학기술 유관학회 및 단체, 그리고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2011.9-2013.8), 편집이사(2015.9-2016.8), 부회장(2020.9-2022.8), 소통위원장 및 부회장(2023.9-현재)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역량과 열정을 갖고 원자력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선배, 동료, 후배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수석부회장 및 학회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성명 : 최 성 민

(서명)